벽지, 명품 아니면 싸구려를 달라!

저가의 합지 수요량 증가 … 친환경 고가제품 고급주택에 인기몰이

국내 건축시장에서 벽지 수요에 변동이 일고 있다.

건축경기 침체에 따라 벽지 수요량이 전년대비 15% 감소한 가운데 고가의 실크지 수요량이 대폭 감소한 반면 저가의 합지 수요량은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합지 가격은 5000-6000원, 실크지 가격은 8000-1만5000원에 형성돼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 가격이 낮은 합지를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에 대한 정부의 잇단 건축규제 및 투기 억제책의 가동으로 건축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어 건자재의 단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계속돼 합지 사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고 천연향을 지닌 천연벽지가 생산·판매되고 있다.

에덴바이오벽지(대표 남윤석)는 흙, 나무, 풀, 꽃, 숯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70여종의 벽지를 자체 생산해 전국 유명 아파트 시공사 및 고급 주택 등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제품임이 널리 알려져 미국,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혜련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0/09>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